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그대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르지 못하니, 지금 당장 떠날 차비를 하라.

당신은 수 세기 동안 살 집을 지으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가 떠나간 뒤에도 수 세기 동안 남아 있을 그런 집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원할 것 같은 믿음은 결국엔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임종 시에 얼마나 비극적인지 보세요.

사실상 그것은 짐작 목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운명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몸이나, 어떤 물건이나, 거저할 장소마저도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는 현자나 진정한 수행자에 대해 이야기를 듣거나 만나게 되면 얼마나 고무되었습니까?

우리는 윤회계 육도에서의 긴 여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가르침에 다가가기 위해 선장이 항해를 위해 세심히 준비하듯 이 생사를 넘나드는 긴 여행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총림법 개정 추진 ‘빨간불’

조계종 중앙총회 등 총림제도 개선 공청회

조계종 중앙총회가 3월 19일 열리는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던 총림법 개정안에 대한 중앙과 일선 총림 간 온도차가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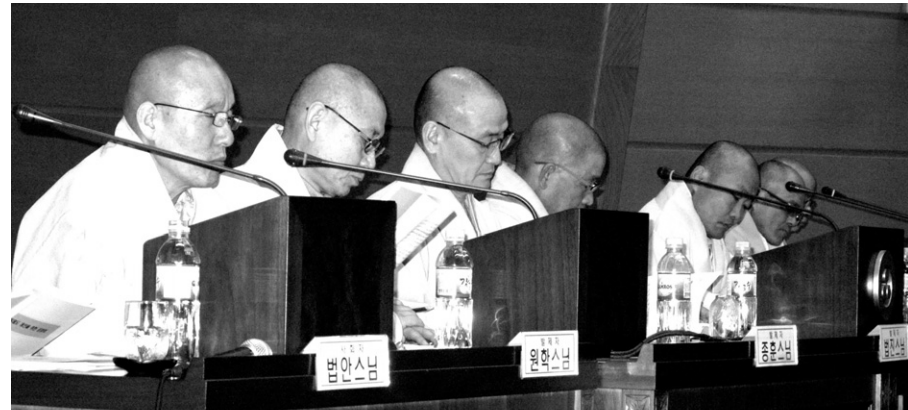
조계종 중앙총회 종헌개정 및 종법 제정 특별위원회, 총림실사위원회, 종단 쇄신위원회는 2월 22일 ‘총림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종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앙총회의원 원학 스님, 결사총괄부장 중훈 스님, 중앙총회의원 원진 스님이 총림의 실태와 그간 종헌종법 특위와 종단 내부 논의를 거쳐 마련된 총림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이후에는 지정·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에서는 총 4가지에 걸쳐 쟁점이 불거졌다. 먼저 쇄신위와 종헌종법특위가 제시한 교구 총림제와 △현행 총림법에 만 명기된 방장 자격요건인 ‘20안거 이상 성만’ 명기 여부 △총림 주지 선출 및 역할 △인회 구성과 역할 등이다.

쇄신위와 종헌종법특위는 총림본사에 선원과 강원을 두고 교구 내에 율원·염불원·삼장원·행원 중 하나를 갖추도록 하는 교구 총림제 방안을 설명했으며, 인회에 대해서는 교구총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의기구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총림 주지 선출에 대해 방장이 추천해 총무원장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기존의 방식을 인회가 복수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방장이 1인을 추천하거나, 방장이 추천해



조계종 중앙총회 종헌종법특위, 쇄신위원회는 ‘총림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총림법 개정에 대한 종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지만, 적지 않은 토론회가 총림법 개정을 반대했다.

중앙·총림 간 온도차 커 교구 총림 확대는 공감 방장 자격 놓고 의견 갈려 “사회 구조로 재단 말라”

임회가 선출하는 방법을 내놨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가한 적지 않은 수의 일선 총림 관계자와 수좌들은 총림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감을 표했다.

해인총림 대표로 심우 스님(중앙총회의원)은 “현행 총림법을 고칠 이유가 없다. 본사 주지 선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총림을 추진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선원수좌회 성두 스님은 “총림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이 종단의 역할”이라며 “무분별한 총림 지정과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방장 자격 기준인 ‘20안거 성만’에 대해서도 “방장은 10년 이상 대중과 함께 생활하며 수행정진하는 게 기본”이라며 “대중 생활을 해보지 않고 대중을 어떻게 제접하겠는가”라고 성토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대표로 기획국장·총무국장 소임 스님들과 동화사 금당선원 수좌 능해 스님도 기존 법안을 유지 보수하며 총림의 위상을 바로 세울 것을 강조했다.

다만 토론회자들은 교구 총림제로의 총림 개념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前 송광사 주지 현봉 스님은 “현재 총림의 개념이 시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산중이 아닌 교구 전반으로 총림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실장 주경 스님은 “선원과 강원을 제외한 수행 기관을 수탈사에 돌 수 있다는 점만 기존 총림과 다르다. 총림의 본래 취지와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종일 기자

첫 종무원 행정학교 문 연다

조계종 3월 6일~9일... 기본소양 등 강의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중앙종무기관과 일선 사찰의 종무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무행정학교를 연다.

조계종은 2월 19일 열린 정기 기자 브리핑에서 2013년 종무행정학교 요강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합리적 사찰 운영을 위한 종무원 양성을 위한 종무행정학교는 불교적 소양과 종무역량을 함께 갖춘 종무원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기본소양과정(예비~1년 미만 종무원) △역량 향상과정(1~5년 미만 종무원) △종무 전문 과정(5년 이상 종무원)으로 나눠 운영된다. 올해 첫 개설되는 종무행정학교는 기본소양과정으로 오는 3월 6일부터 9일까지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다. 대상은 경력 1년 이내의 본말사 재가 종무원 및 산하기관 종사자와 종무원에 관심 있는 불자로 선착순 40명이다. 교육 내용은 △종무원의 마음가짐 △불교, 종단의 이해

실무·전문 교육 과정 준비 중 ‘배출·배치·순환’ 구조 확립

△사찰 종무행정 실무 등으로 이뤄진다. 실무역량 향상과정은 △행복한 관계 맺기 △마음을 움직이는 모연 △재무회계 실무 △가람지기2 실무 △행사기획 실무 등의 과목이 개설되며 각 과목은 본사와 교

구중회 등의 교육 요청이 있을 때 상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각 분야 전문 종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종무 전문과정은 12월 11일~13일 전통문화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사찰 인적관리를 비롯해 수행·지역·문화 전문 과정으로 이뤄진다.

향후 조계종은 중장기적으로 종무행정학교를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오는 2014년까지 산하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등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법령 등을 제정한다. 이에 대해 김영일 조계종 총무차장은 “장기적으로 종무행정학교는 상설화가 필요하다”며 “종무행정학교 상설화는 종무원 고용체계 확립과 종무원 배출, 배치와 순환이라는 구조를 확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중앙승가대 총장 후보 단일화 합의 무산

2월 28일 2차 회의 예정

미산 스님(현 중앙승가대 총장 직무대행)과 원종 스님(前 제주 관음사 주지)이 추진된 중앙승가대 총장 후보에 대한 단일화 합의가 무산됐다.

중앙승가대는 2월 16일 교무회의실에서 조정협의회를 개최했으며, 교수회 측 위원과 동문회 측 위원 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후보를 단일화 하지 못했다. 다만 2월 28일 열리는 중앙승가대 졸업식 이후 2차 회의를 열고 다시 한번 총장 단일화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앞서 중앙승가대 운영협의회는 제3차 회의를 열고 교수회 측 인사 6명과 동문회 측 인사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조정협의회를 구성했다. 두 회의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총장 후보 단일화를 위해 4시간 가량의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한편,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자승)은 1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97차 비공개 이사회를 열고 총장 선출 등의 안건을 다뤘지만, 후보 간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총장 선출 안건이 열 후 “성문·무상·함적·지현 스님이 총장 후보인 미산, 원종 스님과 함께 의견을 조율해 단일 후보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신종일 기자

천태종 ‘나누며 하나’ 사단법인 등록 마쳐

천태종 나누며 하나되기 운동본부가 사단법인 등록을 마쳤다.

(사)나누며 하나되기는 지난 1월 16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2월 1일 법인등기 수속을 마친 뒤 2월 5일 종로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나누며 하나되기는 2003년 12월 설립돼 기아와 재해 및 인권차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고 있는 비영리 국제구호개발단체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성을 위해 2000년부터 시작한 평화통일 불사를 위한 개성 영동사 복원을 비롯한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불교교류 사업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나누며는 이밖에 △경로잔치 및 텀블스테이 개최 등 새터민 정착지원 △새한 줌머인 연대 지원 △자연재해 등 해외 구호 지원 △특수재난 구조 △노노동·인권활동 △사회적 이슈에 적극 참여 중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hyunbul.com

불광불교강좌 안내

각목 스님의 청정도론(淸淨道論) I 10주



- 개강일 : 2013년 3월 18일(월요일)
●강의진행 : 오후반(1시 30분) 저녁반(7시 30분)
●수강료 : 100,000원(교재 별도)

『청정도론(淸淨道論)』(Visuddhimagga)은 1500년전 인도 출신의 붓다고사(Buddhaghosa) 스님이 스리랑카로 건너와서 지은 논서이다. 붓다고사라는 범명의 유래는 붓다고사 스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치 부처님의 음성과 같다고 해서 지어졌다 한다.

상좌불교 전통에서는 이것이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근본말씀’이라고 한다. 팔리어로 지어진 주석문헌으로 경율론의 삼장을 해석하면서 불교의 핵심을 7가지 청정도로 정리한 책이다.

불광아카데미에서는 앞으로 수년에 걸쳐 각목 스님을 모시고, 청정도론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불광

불교대학

불광사에서는 불교와 첫 인연을 맺는 분들과 함께하는 불교기본교육과 불교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2년제 과정의 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광불교기본교육(3개월)

- 주요내용
불자예절, 찬불가, 부처님의 생애, 불교의 역사, 기본교리, 불교문화, 불교의례, 불광신행 등
■ 모집분야
3월 11일(월) 개강
아침반 : 매주 월요일 오전 10 ~ 11시 50분
저녁반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20분
3월 9일(토) 개강
토요일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4시 50분

불광불교대학(2년제 4학기)

- 모집분야
3월 5일(화) 개강
아침반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1시 50분
저녁반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20분
(단, 재일·법회가 겹치는 날에는 오후 2시 ~ 4시)